

식탁의 서사— 당연함이라는 장막 뒤, 침묵의 가사 노동이 마침내 수평을 찾기까지

오랫동안 우리 집 저녁 식탁은 어떠한 마찰음도 없이,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고요하고 당연하게 차려졌다. 현관문의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부엌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 넘쳤고, 압력밥솥은 은빛 증기를 뿜어내며 하얀 쌀밥이 완벽히 뜸 들었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누가 지시한 일도, 미리 약속한 약속도 없었다. 그것은 우리 집을 지탱하는 오랜 중력과도 같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말로 써 내려가지 않은 가부장 제도의 가혹한 규칙이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 풍경을 감상적인 평화로 오독하곤 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유리창에 뽀얗게 서린 서리, 어머니의 손끝에서 빗어지는 정갈한 맛들의 나열. 그러나 이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결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한 여성의 시간과 육체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마모되고 삭아 내리며 유지되던, 극도로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채 정지해 있던 가짜 평화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무급의 가사 및 돌봄을 '그림자 노동'이라 일컫는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도록 일상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필수 불가결한 문명의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화폐 경제의 장벽 밖에서 임금도, 공적인 가치 평가도, 공식적인 지위도 부여받지 못한 채 뒤편으로 밀려나 버린 유령 같은 존재. 나의 어머니가 살아낸 한 평생의 궤적이 바로 그 거대한 그림자 자체였다. 새벽녘 시린 수도물로 쌀을 씻는 소리부터 밤늦게까지 웅웅거리며 도는 세탁기 소리 사이에서, 어머니의 우주는 오직 '집'이라는 사적 공간의 청결함과 안녕을 보전하는 일에 온전히 소진되었다. 아버지는 '바깥일'이라는 신성한 면죄부를 쥔 채 현관문 앞에서 사유하기를 늘 멈춰 섰고, 수혜자인 자녀들과 남편 중 누구도 그 비대칭을 불평등이나 부조리라고 감히 호명하지 않았다.

오랜 균열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퇴직과 함께 우리 집 부엌 모퉁이에서부터 소리 없이 번져갔다.

평생의 준거 집단이었던 일터에서 소외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낮선 낮 시간의 공백 앞에서 어색하게 서성였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 무렵 어머니는 타인의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제 노동을 시작하며 이른 아침 안개를 헤치고 집을 떠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굳건히 닫혀 있어 남성인 아버지에게는 미지의 성소나 다름없던 부엌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린 순간이었다. 싱크대 대리석 판에 튼 물방울들을 마른 행주로 닦아내고, 빈 냉장고의 문을 열어 무거운 손으로 저녁 식자재를 고민하며, 바깥 하늘의 일조량을 세심히 살핀 뒤 젖은 빨래를 탁탁 털어 내는 일. 투박하고 서툰 손끝으로 쓸어내리는 가사의 이면에서, 아버지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임금 노동 뒤에 숨어 있던 고단한 살림의 실제 무게를 온몸의 촉각으로 실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정신적 수평은 단순히 노동의 행위가 늘어난 것에서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무의식중에 사용하던 비겁한 단어인 “도와준다”는 개념을 스스로 파기하면서부터 진짜 변화는 싹트기 시작했다.

'돕는다'는 표현은 가사 노동의 본질적인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오직 여성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남성은 선의를 바탕으로 잠시 호의를 베풀러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는 가부장적 오만을 정교하게 내포한다. 아버지는 그 오래된 권력의 언어를 온전히 내려놓기까지 참으로 긴 실패의 험로를 지나야 했다. 국그릇의 지나치게 짠 간에 어머니의 눈썹이 잘게 요동치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젖은 행주를 비위생적으로 걸어두어 어머니가 말없이 그것을 걸어 세탁기에 넣는 민망함을 겪으면서, 그 무수한 자잘한 일상적 참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엌 바닥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버티면서. 어머니가 매일 반복해 온 가사 노동이 생물학적 본능이나 숙련의 결과가 아니라, 극도로 예리한 집중력과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무수한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끈질긴 수행의 역사였음을 실패의 상흔들을 통해 깨달아 간 것이다.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어느 가을 저녁, 아버지는 조심스레 펴 올린 국그릇을 정성스레 어머니의 앞에 먼저 내려놓으며 고개를 낮추어 속삭였다.

“당신이 평생 혼자서 이토록 무겁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매일 닦아내며 살아왔는지 내미처 알지 못했소. 이 거룩한 무거움을 혼자 지탱하게 해서 미안하오.”

그 나직한 고백의 틈새에는 그동안 가려져 보이지 않던 어머니의 닳아진 세월에 대한 깊은 사죄와, 일상의 사소하고 정교한 가치들을 뒤늦게나마 발견한 한 인간의 엄숙한 겸손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양성평등은 멀고 거창한 정치적 선언문 속에만 박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가장 은밀하고도 사적인 공간인 부엌에서, 오늘 저녁 수저를 누가 먼저 놓을 것인지, 차가운 물속에 누가 먼저 맨손을 담글 것인지에 대한 지극히 구체적인 윤리적 선택의 축적으로 완성된다. 돌봄이란 본능의 허울을 쓰고 여성에게 부과된 숙명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이 서로 연대하고 공존하기 위해 기꺼이 공유해야 할 우주적인 책임인 것이다.

오늘도 나는 부엌 불빛 아래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서서 분주히 손을 움직이는 부모님의 등 뒤를 찬찬히 응시한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끓어오르는 된장찌개를 국자로 휘저으며 양념통의 자리를 다정하게 가리키면, 아버지는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잊어버린 척 다시 묻고 양념통을 단단히 쥔다. 눈부시게 세련되거나 웅장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평등의 얼굴을 조각해 나가는 작고 눈부신 상호 호혜적 소통.

기울어진 우리 집 식탁의 네 귀퉁이는, 이제야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곧고 단단한 수평을 향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